

정상 체중인 성인 남성에서 지방과다와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간의 관련성

권우성, 김준수, 채진욱, 이근미, 정승필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정상체중을 가진 성인 남성에서 지방과다(adiposity)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.

연구방법: 2001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만 28-69세 성인 남성 129명을 대상으로 연령, 신체계측, 혈압, 공복 혈당, 혈청 지질대사치와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였다. 체질량지수(BMI)가 18.5~23 kg/m² (76명)인 정상체중군과 23~25 kg/m² (53명)인 과체중군으로 분류하고, 체지방률, 체지방양과 위험인자들(수축기 혈압, 이완기 혈압, 공복시 혈당, 중성지방, 저밀도 지단백, 고밀도 지단백)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, 정상체중군을 지방과다(adiposity)에 따라 3군으로 나누고, 각 군과 과체중군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평가하였다. 정상체중의 제1군을 기준으로 제2, 3군과 과체중군의 위험인자 존재에 대한 비차비(odds ratio)를 조사하였다.

결과: 정상체중군에서 지방과다 변수들(adiposity variables: 체지방양, 체지방율)과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, 저밀도 지단백, 고밀도 지단백, 중성지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(P<0.01). 나이를 보정하고 난 뒤 제1군을 기준으로 제3군(체지방률: 3.7, 체지방양: 4.7)과 과체중군(체지방률: 6.6, 체지방양 11.5)에서 위험인자에 대해 더 높은 비차비를 가진다.

결론: 지방이 많은 정상체중의 성인남성은 적은 지방을 가진 성인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에서 더 높은 유병 위험도를 가진다. 지방 측정은 정상체중군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중심단어: 체질량지수, 체지방율, 정상체중, 심혈관 질환, 위험인자